

# 한봉농가 '눈물의 벌통태우기'

## 구례 내죽마을, 대보름에 폐사 꿀벌 회생기원 3만여군 소각

지난 17일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내죽마을에서 이색적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렸다.

한봉(토종꿀)을 치는 주민들이 한 봉 벌통으로 10m 높이의 달집을 쌓아 올리고 액운이 사라지길 기원하는 역운방(厄運榜)을 작성해 벌통에 매단 후 이를 불사른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이상기온과 '남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꿀벌 대부분이 폐사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날 꿀벌 회생기원 대보름 행사에는 구례군 전체 808개 한봉농가에서 2만8501군(蜂=1군 벌통 4~7개)의

오염벌통이 모아졌다. 주민들은 오염 벌통을 태우며 두손을 모아 올해 꿀벌의 회생을 간절히 기원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남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토종벌 농가들에 대해 종자벌과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 지원활동에 들어간다.

구례군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남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토종벌이 집단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지역내 한봉농가들을 돕기 위해 ▲종자벌 구입비 500군(1군= 2만3000~3만마리) 1억5000만원 ▲기자재(벌통) 구입비 4억400만원 등 총 5억54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금은 자부담이 50%로, 오는 4

월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종자벌 구입비 지원액은 1군당 30만원, 기자재(벌통) 구입비 지원액은 1군당 1조(벌통 4개)기준 1만2000원이다.

이밖에도 군은 2억원을 들여 내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건강한 토종벌을 육성, 농가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한편 토종벌 에이즈로 불리는 '남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애벌레에 악성 바이러스가 발생해 새끼말게 씌어 고사하는 병으로 지난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토종벌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전남 동부권

## 공장폐열로 기름값 걱정 뚝

### 곡성군 시스템 개발 농가 보급...난방비 50%↓

최근 유가상승으로 겨울철 시설재배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곡성지역의 공장폐열을 이용한 시스템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성군은 금호타이어 공장굴뚝에 시간당 100만kcal급 교환기 2대를 설치하고 굴뚝으로 빠져가는 폐열과 온수보일러, 배기열 회수장치를 결합해 시설하우스 2ha에 공급, 난방비 50%를 줄이고 있다.

처음 도입할 당시 공장에서 굴뚝으

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해 난방하는 시스템이 에너지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공급되는 공장폐열 부족시 대책이 없고 소모되는 열량이 많아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군은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연구과 '공장폐열회수 난방 효율개선을 위한 농가 실증시험'을 실시, 온수보일러와 배기열 회수장치를 장착한 결과 난방비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피망을 재배하고 있는 김중배씨는 "평년보다 낮은 겨울 기온과 높은 유류가격으로 작물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공장폐열 이용으로 난방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재배 농가에 생산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여수박람회 日 관람객 유치 청신호

### 日 가라츠항대표단 직항로 논의차 여수 방문

오는 2012년 5월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 일본 관람객 유치에 청신호가 쏠렸다.

여수시는 여수박람회 개최때 여수와 일본 가라츠 간의 직항로개설을 목적으로 사전조사차 '가라츠항 이용 촉진협의회' 대표단이 22~23일 1박2일 일정으로 여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타케우치 카츠시 건설부장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일행은 22일 시모노세키항을 취항중인 광양페리(주)를 방문해 가라츠항 유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여수박람회장을 방문해 준비상황과 항만시설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박람회 관계자와 항로개설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단장으로 방문하는 타케우치 카츠시씨는 "여수박람회 기간 중 많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박



시모노세키항 취항중인 광양비치호

람회와 연계해서 '이순신대교'와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불거리가 풍부하다는 것을 일본선사 등에 포토펬일드도 나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단은 올해가 여수 청년회의소와 가라츠청년회의소간 결연 4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 가라츠와 여수간 전세 선박을 띄우는 것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주말엔 다도해 크루즈 여행"

### 광양해리-하나투어 협약...4월부터 운항

광양과 일본을 연결하는 신설 카페리 선사인 광양해리씨가 국내의 다양한 카페리 여행상품 개발에 발벗고 나섰다.

광양해리씨는 지난 17일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지역 관광 활성화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주말 다도해 크루즈'라는 주말 여행을 실시한다.

하나투어는 전남지역 인트라밴드 관광활성화 및 내·외국인의 수요확대를 꾀하고 마케팅 다각화를 통한 광양해리 국내 크루즈 1박 2일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사계절에 맞는 고품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말 여행상품은 토요일 오후에 광양을 출발해 일요일 낮에 광양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광양해리씨는 가족단위의 주말여행과 연인들의 선상파티, 각 기업체의 선상연수 등 하나투어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고품격 식사 제공과 이벤트로 전남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4079@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 천 지 사	(061)746-8111
여 수 지 사	(061)653-8444
광 양 지 사	(061)792-8111
고 흥 지 사	(061)842-2121
보 성 지 사	(061)853-1190
구 례 지 사	(061)783-8111



## "여수박람회 홍보관 구경 왔어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해양분야 개도국 지원사업인 여수프로젝트 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남아·남태평양 연안국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지난 18일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방문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1차 연수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필리핀, 피지, 인도네시아, 투발루 등 5개국에서 50명이 참가했다. <여수시 제공>

# 전 북

## 문화시설 없고 교통불편에 물가도 비싸

# "나 울산으로 돌아갈래"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주 직원들 생활 불만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해 울산으로 돌려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됐습니다." 울산에서 이주해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살아보니 번번한 문화시설 하나 없이 생활물가는 비싸고 아이들 교육도 걱정돼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

이주 3년째인 군산조선소 직원들이 척박한 군산지역 정주 여건에 힘겨워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군산공장 착공과 함께 울산에서 이주해온 직원은 30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들은 군산을 중심으로 전주와 익산 등에 동지를 틀었다. 하지만 당시 군산에 터잡은 최모(51)씨는 현재 주말부부이다. 최씨는 "울산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군산 번두리에 새 집까지 지었지만 얼마 안 돼 돌아가자는 가족들의 원성이 너무 컸다. 어쩔 수 없이 정년퇴직 후 울산에서 다

시 합치기로 하고 군산에 홀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타향살이도 힘든데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번번한 문화시설도 없고 정비구니 물가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경제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고 토로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최씨 가족과 같은 고충상담은 부지기수이며 최근 울산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조합에 공식요청한 직원도 6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울산의 경우 공장 앞에 각종 쇼핑몰과 병원, 영화관이 즐비한데다 최근한 후 운동할 수 있는 잔디구장 등도 12곳에 달하지만 군산공장 주변은 황량하기 짝이 없다는 것. 또 군산지역 대신 전주와 익산을 선택한 직원들은 열악한 대중교통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다섯 식솔과 전주로 이주한 유모(40)씨는 "이주 당시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고 심했다.

그나마 전주가 좀 더 낫겠다는 생각에 군산 이주자만 혜택받는 정착금도 포기한 채 전주를 택했는데 살아보니 정주 여건은 대체로 울산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 산업단지행 직통노선이 없어 매일 시내·외 버스를 6차례나 번갈아 타야만 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선 허를 찔렀다. 유씨는 "군산은 대기업이 많아 교통여건은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주하고 보니 실재론 출퇴근할 수 없을 정도라 기가 찼다. 최근 유씨를 세운데 이어 지난 2007년 4월 전지관을 개관했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피노마를 체질속박과 수를 분석한 결과 2007년 900명, 2008년 1500명, 2009년 1700명, 2010년 2600명으로 2007년 대비 무려 3배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방문객도 2007년 1만1000명에서 2010년 3만2000명에 달했다. 이 인한 세외수입도 2007년 470만원, 2008년 760만원, 2009년 900만원, 2010년 1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군 세입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순창 전봉준 피체지 인기 금상승

### 최근 4년간 관광객·세수 3배 경증

순창군 쟁치면 금성리 피노마마을은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이 일경에 의해 체포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순창군은 이곳에 2005년 피체(被逮)지 유적비를 세운데 이어 지난 2007년 4월 전지관을 개관했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피노마를 체질속박과 수를 분석한 결과 2007년 900명, 2008년 1500명, 2009년 1700명, 2010년 2600명으로 2007년 대비 무려 3배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방문객도 2007년 1만1000명에서 2010년 3만2000명에 달했다. 이 인한 세외수입도 2007년 470만원, 2008년 760만원, 2009년 900만원, 2010년 1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군 세입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이는 전봉준장군 피체지 전시관에 서 역사유적을 살펴보고 객실 5개와 다목적실, 샤워실, 휴게실 등 최대 100여명까지 숙박할 수 있는 콘도형 시설을 갖춰 고객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족이나 소규모 단체 모임시 미니축구장, 족구장 등 잔디구장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으며, 주변에 대법원 가인 연수관, 흥농촌, 낙덕정 등 문화유산이 가득해 문화유산 탐사코스도 좋아 가족단위 방문객과 청소년들의 방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유적도 답사하고 체험도 하며 가족, 회원간 친화력을 높일 수 있어 한번 찾았으면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단 신

## 임권택 감독 신작 '달빛...' 전주서 시사회

임권택 감독의 101번째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가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지난 17일 전주에서 최초로 시사회가 열렸다. '달빛 길어올리기'는 천년을 가는 종이인 전주 한지의 복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임감독은 2년여

동안 직접 전주지역 현장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전주 한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구상했다. 이번 작품은 롯데 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투자·배급·마케팅을 담당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스포츠 레저브랜드 '우수 지자체'

군산시가 스포츠 토트 주회의 '2011 대한민국 스포츠 레저브랜드 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지난해 전국 25개 자치단체와 경쟁, 공격적인 심사를 거쳐 스포츠마케팅 부분 전국 최고 지자체로 유일하게 선정돼

스포츠마케팅 우수 지자체상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운영 ▲새만금을 활용한 특성 있는 스포츠 마케팅 활동 ▲풍부한 체육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박성태기자 nogusu@

## 김제시, 어린이집 급식 우리밀 지원

김제시는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우리밀 소비촉진 사업으로 국수와 면, 식품을 지역 유통업체와 유아원,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시는 유아용 간식을 우리밀 식품으로 급식하기 위해 3000만원

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우리밀 수요를 늘리고 유아 성장을 돕는 한편 농산물 유통농지를 활용한 우리밀 재배로 농가소득 증가와 국산 농산물 애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정읍시 '현장중심 기동점검' 연중 운영

정읍시는 올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중심 기동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공직사회 관행 타파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불법건축·산립훼손 등 불법사항 개선 ▲제설작업·정소행정 등 시민불편사

항 개선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읍면동 분야별로 '현장중심 기동점검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교과서 속 '전북' 오류 투성이

### 전주대 초·중·고 114종 분석...도 수정키로

일부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전북 관련 정보가 상당수 틀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대가 전북도의 의뢰를 받아 초·중·고 교과서 총 114종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왜곡되고 문화유적지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는가 하면 이미 사라진 축제 등이 버젓이 게재되는 등 오류 투성이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 농민혁명을 촉발한 안성보 유지비 위치가 정오인 아닌 부안으로 잘못 표기됐다 또 한국지리(고교)에서는 이이 없어진 '전주 국제컴퓨터 게임 축제'가 여전히 소개됐으며, 사회(고교) 과목에서는 섬진강댐이 육점댐으로 표기돼 있었다. 미술과 사회(중학교) 과목에서도 군산항의 위치가 잘못 표기됐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대표축제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축제들은 아예 누락했다. 특히 교과서가 개정된 것인데도 사회·사회과목(초·중·고)에서는 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를 지도에 표기하

지 않았고, 11개 교과서에 실린 조감도도 수년 전의 것이 그대로 사용됐다. 이처럼 교과서 속 전북의 모습과 정보가 상당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도는 출판사 측에 수정할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출판사 저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나 랩투어 등을 열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